

<12.3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

- 김용현 관저, 삼청동 안가모임, 전투통제실 참석한 인원 모두 체포 및 수사 촉구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12.3. 내란사건이 일어난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에 깊숙히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핵심직위자들이 아직도 현직에 머무르고 있어, 문서파기, 증거은닉, 도주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도 진상조사를 통해 그간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대규모로 군 고위 현역직위자들이 개입되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께 이 사실을 알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추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수사나 진술이 필요한 관계자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먼저 12월 3일 새벽에 김용현을 관저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밝혀내야 하는데,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양0열씨라는 민간인입니다. 김용현의 비서관 노릇을 하던 양씨는 소대장 시절 전령을 인연으로 경호처장시절 이전 부터 가족과 떨어져 사는 김용현의 공관에서 집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때로는 중요인사들에 대한 접객부터 이동안내 및 수행업무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박선원의원이 제기했던 3사령관과 장관과의 회동 당시에도 한남초등학교까지 차량을 이용해 각각 사령관들을 데려온 이도 양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 자수하기 직전에 휴대전화 등을 맡긴 인물이기도 하고, 아직도 김용현의 내란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2. 국방부 핵심직위자들에 대한 조사와 진술확보도 시급합니다. 김용현은 12월 3일 당일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이미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국방부 정책차장 방정환 준장은 당일 오후에 휴가를 내고, 정보사 판교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방정환 차장은 물론 휴가를 승인한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합니다. 국방부 지휘구조상 정책실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3. 삼청동 안가모임에 참석한 인사들입니다. 12월 3일 19시경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외에도 박안수 육군총장, 김용현도 참석한 윤석열 주재 만찬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삼청동 안가를 관리하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즉각 소환해서 삼청동 안가모임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몇명이나 모였고,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내란음모 계획과 실행 과정을 밝혀야 합니다.

4. 12월 3일 18시경부터 정보사 판교사무실에서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심문단장, 구삼희 제2기갑여단장, 앞서 얘기한 방정환 준장 등이 모여들고 있었다 합니다. 이중 제2

기갑여단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여단으로 K1A2로 무장한 3개의 전차대대가 배속되어 있습니다. 판교모임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구삼회 여단장이 군단장의 승인이나 보고없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 22시 30분경 계엄령 발표 직후 전투통제실로, 박안수 계엄사령관, 정진팔 합참차장, 이재식 전비태세검열차장, 오영대 인사기획관, 전하규 대변인을 호출하였습니다. 사전에 몰랐다고 했으나, 당일 이들에게 군사작전 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으리라 추정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시급히 확인해야 합니다.

6. 윤석열의 전투통제실 방문시 배석했던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보2차장 인성환,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당시 윤석열은 본인이 작전을 지휘하다시피 직접 명령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과 증언을 빨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7. 강호필 지작사령관에 대한 의문도 해소해야 합니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공식 화상회의가 끝난 새벽 3시 20분경의 내란 핵심세력간의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즉, 방첩, 특전, 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참석한 것입니다. 특히 강호필 지작사령관의 11월 행적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지작사령부는 국군병력 약 25만명의 병력을 거느린 초대형 사령부인만큼 사령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부대입니다. 사령관이 사전에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8. 12월 4일 계엄령 해제 2시간 후인 새벽3시, 육군본부에서는 34명의 육군 주요직위자들과 고위 장교들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계엄사령부에서 본인들이 어떤 역할과 임무를 맡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 이후 2차계엄 준비여부인 바, 이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 합니다.

9. 현재 국방부장관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선호 차관에게 당부드립니다. 국내외 어떤 상황에서도 빈틈없는 방위태세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의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적절한 계기에 전면적인 공개와 해명으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제거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희 진상조사단은 이처럼 많은 주요 군핵심 고위직위자들이 관련되었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오늘 언급된 직위자들에 대한 어떠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으며, 본인 스스로 국방장관 대행자 또는 군수사기관에 소명을 해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와 같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에도 <국민의힘>측은 진상조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군인에 의해 침탈된 상황입니다. 당리당락을 떠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12월 3일 당일 국방부의 행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임위소집, 국정조사권 발동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끝

※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 박범계·서영교 부단장, 이소영·박선원 간사,
강유정 대변인, 부승찬·양부남·이건태·이상식·김태성·신현성·노승일 위원

※ 문의 : 박선원의원실 784-3740

2024.12.19.(목)

더불어
민주당